

북한주민의 마약 사용 및 중독: 실태와 대책

양옥경* · 윤여상** · 이관형*** · 김성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주민들의 마약 사용 및 중독의 실태를 밝히고,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전략 및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1,467명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 중 마약의 생산, 유통, 사용 등의 실제 경험이 있는 18명을 심층면접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16.5%가 마약접촉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자신들이 사용하는 물질이 마약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용 빈도도 증가하는 추세였다. 현재 북한에서 마약은 “미물이 아닌 이상” 그 누구라도 접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또한 많은 마약 사용자들이 중독의 상태에 이르고 있었고, 자신들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에서는 실질적인 마약 중독 치료와 재활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북한 당국에 의한 마약 단속 시 법적 처벌로 귀결되고는 있으나, 단속 등 법적·제도적 규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 조속히 전문치료를 도입하고 마약퇴치에 적극 나서야 하며, 한국과 국제사회는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하여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함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마약에 노출된 경험을 가진 일부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 (사)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위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전문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전환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북한마약, 북한주민, 마약사용, 마약중독, 통일전환기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대부분 국가에서 마약 사용은 불법이거나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다양한 유형의 마약이 일반인들의 생활을 파고들어 끊임없이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다. 이는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북한에서의 마약 소비의 실태는 관심의 차원을 넘어 우려의 상태까지 와있다. 국내 언론의 탐사보도가 지면과 TV에 발표되고(신동아 2002/09; KBS TV 추적 60분, 1221회), 2004년 8월에는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북한이 마약수출로 연간 5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뉴스가 방송되었다. 이후 한국의 공공방송에서도 북한의 마약제조와 유통의 문제가 보도되곤 하였다(YTN 2003/05/22; 연합뉴스 2005/09/16; 2006/09/19). 2000년대는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한 목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조직적으로 마약을 생산하고 국제사회에서 마약을 유통시키는 주요국가들 중 하나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정상 국가에서는 국가가 불법성을 가진 마약을 통제하는 주체이지만,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국가가 마약의 생산, 소비, 운송, 재투자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뉴스가 되었다. 그로인해 정부가 나서서 마약시장을 주도하는 ‘정권 지원 마약밀매(regime-supported drug trafficking)’를 자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조성권 1999, 179). 따라서 북한 마약문제는 북한 당국 차원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으로 비춰졌다.

그러나 최근 탈북하여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보면 외화를 벌기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해왔던 마약 제조와 수출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북한 일반 주민들의 마약사용은 위험 수준이며, 이는 이들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마약 사용은 물론이고 마약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서도 「마약관리법」을 제정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의 마약 생산과 유통 및 소비의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식량부족과 경제난으로 ‘고난의 행군’ 시기를 보내면서 일반인들에게 마약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고 마약 사용이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반 주민들의 마약사용의 급증은 중독의 수준으로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KBS TV 2013/10/31).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마약 사용실태와 그 폐해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일부의 내용이 보도(Los Angeles Times 2014/01/27; NBCNEWS 2013/12/07; Newsweek 2011/06/19)되는 수준일 뿐 체계적인 실태조사나 과학적인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한 자료 부족과 ‘마약’이 갖고 있는 은밀성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마약사용과 그로 인한 중독의 심각성으로 미루어볼 때, 기초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마약밀매가 확대된다면 초국가적 범죄조직과 연대해 한국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를 더욱 위협할 것이다(조성권 1999, 190). 이미 한

1) 북한은 “마약의 생산과 공급, 보관과 리용, 수출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기 위한”을 목적으로 하는 「마약관리법」을 2003년 8월 ‘채택’(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35호)했으며, 2005년 5월 ‘수정보충’(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131호)하였음. 한편 북한은 2013년 9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76호로 ‘수정보충’한 형법 ‘206조(비법아편제배, 마약, 독성물질제조죄)’에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도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해 과거보다 더 높은 형량을 명시하였음.

국과 일본은 북한 마약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구소련이나 동유럽 국가들에 있어 체제전환 과정에서 마약 범죄조직이 급성장했듯이(조성권 1999, 191; 미샤 글레니 2008), 북한마약 문제도 통일전환기나 통일 후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셋째, 북한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중요하다. 북한의 경제난으로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가 생계 유지를 위해 지하경제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곧 마약의 생산, 거래, 운송과 연관됨을 의미하고, 쉽게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게 되면 무분별한 소비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북한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주민들의 마약 사용 및 중독의 실태를 밝히고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전략 및 과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과 정책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들 중 생산, 유통, 사용 등의 실제 경험이 있는 주요 인물들을 심층면접조사를 하였다.

II. 문헌고찰

마약은 인류 역사의 흐름과 진화에 늘 함께 해왔다. 원시 시대(BC 10,000-BC 500)에는 대마와 아편류가 종교적 의식 및 치료용으로 서초자연적 객체로 사용되었으며, 고대 시대(BC 500-AD 500)에는 과학적 객체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로마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한 AD 4세기부터는 마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중세시대부터는 마약을 ‘악마의 선물’이라고 인식하였다. 16-18세기에 들어서서는 다시 치료용 목적으로 대중화 되면서 역으로 ‘신의 선물’로 불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면서 18-19세기에는 아편의 경우 필수적

의약품으로 등장하게까지 되었다.

19세기 화학의 발전과 함께 반(半)화학합성 마약인 모르핀, 코케인, 헤로인 등이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마약은 그 소비가 급증하게 되었고, 19세기 말-20세기 초 부터는 마약 중독이 세계 각국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각종 마약을 법적으로 금지하였으며 치료목적인 의료약품으로의 사용으로만 허용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통제하였다.

북한의 마약 사용과 중독, 그리고 치료 등 마약사용 문제 전반을 체계적으로 다룬 기존 연구문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양한 제약요인과 관심부족, 그리고 현실적인 조사와 연구의 한계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 마약 관련 정보와 자료는 전문 연구결과보다는 언론 보도나 국가기관의 정보 브리핑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마약문제는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끊이지 않는 이슈로 연일 당시 일간지의 사회면을 장식했었다(동아일보 1952/05/05; 1955/12/03; 1960/02/13; 경향신문 1958/03/26). 특히 1970년대부터는 북한 당국 차원의 마약 밀매 이슈가 국제적으로 부각된 지 오래며(함중영 2017, 68-74; 조성권 1999, 175-203; 국가안전기획부 1998, 281-292) 곧, 북한 마약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존재해 온 ‘오래된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북한 주민 차원의 마약 사용과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밝힌 연구문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 2016년 12월에 밝힌 북한 마약문제 조사 결과에 의하면(북한인권정보센터 2016), 현재 북한에서는 계층, 지역, 연령과 관계없이 전 주민들이 마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북한 주민들의 마약 사용과 중독 등 보건의료적 시각에 의해 다뤄진 연구는 거의 없다. 북한 마약 문제는 주로 북한 당국 차원의 국제적인 범죄 활동 즉 마약

의 생산과 유통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조성권 1999; 국가안전기획부 1998; Perl 1999; Chestnut 2007; Perl and Nanto 2007; Clayton 2012; 빅터 차 2016; 함중영, 2017). 근래에 들어 북한 내부의 사회적 차원에 초점을 맞춰 미시적 차원의 연구가 진행된 사례도 있지만(Yun and Kim 2010; Lankov and Kim 2013), 북한 주민 차원의 마약 사용에 따른 중독과 치료 실태를 규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는 북한 보건의료 관련 최근 국내 연구들(최현규 2010; 김진숙 2012; 김석주 외 2012; 이해경 2013; 신희영 외 2016; 박상민 외 2013; 이미진 외 2013)에서도 이 주제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나 언급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북한의 문헌이나 보건의료계에서 종사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등 관련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에서도 마약 생산, 사용, 관리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고²⁾, 북한의 보건의료 전공 학생들이나 종사자들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김석주 외 2012, 35).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혼합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북한주민의 마약중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 연구방법, 그리고 주요 핵심

2) 북한은 「마약관리법」을 채택, 시행중에 있음.(2003년 8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35호로 채택’, 2005년 5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31호 수정보충’) 또한 최근에 개정한(2015년 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4호’ 및 2015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8호’) 「형법」 ‘제6장(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제206조(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 · ‘제207조(비법마약사용죄)’ · ‘제208조(마약 밀수, 거래죄)’ 등의 조항을 두고 형기를 최저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서부터 최고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의 처벌을 가하고 있음.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중적인 심층면접조사 연구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14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1,4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북한이탈주민의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배경, 재북 당시의 거주지 및 당원 가입 여부와 탈북연도, 마약 관련한 사항으로는 마약의 접촉경험, 마약의 인지여부, 중독인지여부, 중독으로 인한 피해인지여부, 치료여부 및 정부의 대응에 관한 질문들을 담고 있다.

이들 중 총 18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2016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1인당 1회 또는 2회에 걸쳐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본 연구진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조사 대상자 중 1명의 경우 4회에 걸친 면접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심층면접은 구조화된 반개방형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조사를 위해 북한에 있었을 당시 사용한 마약의 종류, 방법, 빈도, 양 등을 비롯하여 주로 누구와 사용했으며 언제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또한 탈북 직전 시기에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마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했었는지, 마약사용에 대한 치료나 처벌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종류였는지, 그리고 북한당국은 마약사용에 대해 어떤 해결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설문지에 사용된 용어는 마약 외에 북한에서 주로 사용되는 ‘얼음’, ‘아이스’, ‘빙두’(이상의 용어는 메스암페타민의 별칭), 아편 등을 병기하였으며, 북한 생활 당시의 인식을 질문하였다. 심층면접조사 소요시간은 1회당 90분에서 120분 정도였으며, 길게는 300분 정도가 소요되는 사례도 있었다. 심층면접은 조사 대상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실시했으며, 심층면접 진행자가 직접 전사(轉寫)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 특성

(1) 설문조사 대상자

설문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20.1%, 여성 79.9%로 여성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별 불균형은 현재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비율인 남성 29%, 여성 71% (통일부, 2017)로 여성 비율이 높은 것과 비교해보았을 때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연령은 20대가 33.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0대(26.9%)와 40대(26.5%)가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50대 10.0%, 60대 이상 1.5%, 10대 0.8%의 순서이다. 20대와 30대, 40대 비율이 높은 것은 젊은 연령층이 외부정보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과 중국 등 해외로의 탈출빈도가 높은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 하겠다.

최종학력은 고등중학교졸업(중퇴 포함)이 71.9%로 가장 많았고, 전문학교졸업(중퇴 포함)이 11.8%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대졸(중퇴포함)은 6.5%이며, 인민학교 졸업(중퇴포함) 4.5%, 미취학인 경우도 7명(0.5%) 있었다.

설문조사 대상자의 탈북시점은 현재의 북한마약 사용 실태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1990년대 탈북한 경우는 8.3%에 불과하였으며, 2000년대 탈북한 경우가 31.6%이고 2010년 이후 탈북한 경우가 56.4%였다. 2010년 이후가 과반을 차지한다. 그중에서도 2013년 이후 탈북한 경우가 42.2%여서 비교적 최근 탈북한 대상자들이 많다. 이에 본 조사결과는 북한 마약사용의 최근 실태까지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 대상자가 북한에 있었을 당시 최종 거주지역이 어디인지

를 아는 것 역시 중요하다. 북한 마약 사용이 현재 얼마나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과반을 차지하는 50.3%가 함경북도 거주자였다. 양강도 거주자가 29.5%로 그 뒤를 이었고, 함경남도 거주자가 7.0%로 나타났다. 이들의 최종 거주지가 이 3개 지역에 몰려 있는 이유는 주지하듯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탈북하기 쉬운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 평안남북도 4.8%, 평양시 2.0%, 강원도 1.8%, 자강도 0.7%이다.

설문조사 대상자의 북한 노동당원의 비율은 10.1%로 북한주민 전체에서 차지하는 노동당원의 비율인 13%(2016년 5월 북한의 7차 당대회 참가자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원 가입 여부에 관해서는 북한 주민의 대표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겠다.

(2) 심층면접조사 대상자

심층면접조사 대상자 18명의 기본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성 14명 77.7%, 여성 4명 22.3%로 남성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대상은 전체 북한이탈주민이 성비가 반영되어 여성의 비율이 높으나, 심층면접 대상은 실제로 마약의 제조와 생산, 운송 및 판매 등의 경험을 가진 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마약 생산과 유통 종사자의 다수는 남성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연령별 현황은 20대 1명(5.6%), 30대 1명(11.1%), 40대 10명(55.5%), 50대 5명(27.8%)으로 4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학력별로는 고등중학교(현재의 초급 및 고급 중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가 각각 9명이다. 이들의 최종 탈북시점은 1990년대 후반 1명(5.6%), 2000년대 중반 2명(11.1%), 2000년대 후반 2명(11.1%), 2010년 이후 2016년 5월까지 13명(72.2%)이다. 이들이 북한에 있었을 당시

거주했던 지역은 거주지 이동을 포함하여 정리하였다. 거주지 이동이 마약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함경북도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평양시, 양강도, 함경남도, 강원도, 평안남도 순이었다. 당원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18명 중 5명(27.8%)이 당원이었다. 북한의 당원 비율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마약이 북한 당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반증해주는 결과라 하겠다.

〈표 1〉 심층면접 조사 대상자 기본 특성

| 연번 | 회차 | 면접대상자 | | | | | |
|------|----|-------|-----|----|----------------|-------|-------|
| | | 성별 | 연령 | 학력 | 거주지역 | 탈북시기 | 입국시기 |
| A-01 | 1회 | 여 | 50대 | 고졸 | 함경북도 | 2013년 | 2015년 |
| A-02 | 1회 | 남 | 40대 | 대졸 | 함경북도 | 2005년 | 2005년 |
| A-03 | 2회 | 남 | 40대 | 대졸 | 함경북도 | 2005년 | 2005년 |
| A-04 | 4회 | 남 | 30대 | 대졸 | 양강도 | 2013년 | 2013년 |
| A-05 | 1회 | 남 | 40대 | 대졸 | 함경남도 | 2012년 | 2012년 |
| A-06 | 2회 | 남 | 30대 | 고졸 | 함경북도 | 2013년 | 2013년 |
| A-07 | 1회 | 남 | 40대 | 고졸 | 함경북도 | 2015년 | 2015년 |
| A-08 | 2회 | 남 | 40대 | 고졸 | 함경북도 | 2013년 | 2014년 |
| A-09 | 2회 | 여 | 40대 | 대졸 | 평안남도 | 2008년 | 2013년 |
| A-10 | 1회 | 여 | 50대 | 대졸 | 함경북도 | 1999년 | 2003년 |
| A-11 | 1회 | 남 | 20대 | 고졸 | 함경북도 | 2014년 | 2014년 |
| A-12 | 1회 | 남 | 40대 | 고졸 | 함경북도 | 2015년 | 2015년 |
| A-13 | 1회 | 남 | 40대 | 대졸 | 평양시, 함경북도 | 2014년 | 2014년 |
| A-14 | 2회 | 남 | 50대 | 고졸 | 평양시, 함경북도 | 2006년 | 2006년 |
| A-15 | 2회 | 여 | 50대 | 고졸 | 함경남도, 평양시, 강원도 | 2016년 | 2016년 |
| A-16 | 2회 | 남 | 40대 | 대졸 | 평양시, 양강도 | 2009년 | 2009년 |
| A-17 | 1회 | 남 | 50대 | 고졸 | 함경북도, 평양시, 강원도 | 2016년 | 2016년 |
| A-18 | 2회 | 남 | 40대 | 대졸 | | | |

* A-10 국가과학원 근무; A-13 마약 외 품목 국외 유통; A-16 연구원 근무

2. 북한주민들의 마약 중독 현황

(1) 마약의 종류

북한 주민이 주로 사용하는 마약의 종류는 메스암페타민, 생아편, 모

르핀(분말, 액체), ‘덴다’, ‘총탄’ 등으로 밝혀졌다. 생아편의 경우 시기, 지역과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아편’으로 불리며, ‘까만약’³⁾이라고 하기도 한다. 메스암페타민의 경우 이미 국내외 언론 등을 통해 잘 알려졌듯이 마약 생산 지역, 마약 종류, 품질 및 특성 등을 반영한 다양한 은어가 존재한다⁴⁾. ‘얼음’, ‘아이스’, ‘빙두(冰毒)’, ‘약’, ‘물’, ‘뽕’ 등으로 불리는데, 1990년대 말에는 ‘엑스’⁵⁾, 2000년대 초반에는 ‘흰가루’⁶⁾로 불리기도 했다. 또한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생산한 것은 함흥‘물’로,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생산한 것은 평성‘물’⁷⁾ 혹은 ‘총석정’으로 불리기도 했다. 북한 내부에는 마약에 대한 다양한 은어가 존재하는데 질에 따라 사용방법에 따라 달리 불리고 있다. 마약 중독자에 대한 표현도 다양하다. 함경북도, 양강도 등 ‘국경연선’ 지역에서는 ‘물라이’, ‘뽕돌이’, ‘코재’, ‘헤디재’, ‘헤디환자’ 등으로 부르고 있다. 단, 평양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중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2) 마약의 사용경험

설문조사 대상자의 16.5%가 마약을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그 접촉의 내용이 마약을 직접 사용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기타에서 밝혀진 바대로, 생산, 장사, 밀수 등을 위한 접촉은 아닌 것 같으므로 직접 사용

3) A-18의 구술. “아편 중독자는...그저...까만약, 까만약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까만약 중독자라고 한 단 말입니다.”

4)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 http://www.drugfree.or.kr/information/index.html?contentsNum=2&category=DRUG_2&headNum=&seq=2178&tpage=4 (2016년 9월 29일 검색).

5) A-02의 구술. “(문: 그럼 뭐라고 불렀어요? 얼음이라고 했죠?) 아니요. ‘엑스’라고 불렀어요. 요즘에 얼음이라는 것은 여기에 와서 들었지. 엑스, 엑스 이랬어요.” 심층면접에서는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증언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6) A-12의 구술. “아...그 때 당시 마약을 마약이라고 하지 않고, ‘흰가루’라고 표현하더라구요.”

7) A-15의 구술. “함흥에서 많이 들어오죠. ‘함흥물’을 제일 많이 찾거든요.”

또는 가족 및 친구 등에게의 전달을 위해 접촉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생산, 장사, 밀수를 위한 경험을 했다고 직접 밝힌 경우도 5.6%에 달하고 있어 이를 합하면 접촉의 경험은 22.1%로 더 높아진다. 5명 중 1명이 접촉을 했다는 것인데, 이 숫자만으로도 북한 마약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종탈북연도와 교차분석한 결과, 1990년대 4.7%, 2000년대 7.0%에 불과하였으나 2010~2012년 13.6%, 2013년 26.8%, 2014년 25.0%, 2015년 36.7%, 2016년 66.7%로 상당히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 장사, 밀수의 경우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층면접 대상자 18명 중 마약사용의 직접 경험자는 14명 77.8%이다. 이들 중 10명은 마약의 직접 사용 뿐 아니라 국내와 국외로의 운송 및 판매의 경험도 함께 갖고 있었으며, 다른 4명은 단순 사용자였다. 이들 중 1명은 마약을 생산도 하고 유통도 하였지만 정작 자신은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여성이었다. 나머지 4명은 마약을 직접 사용한 경험은 없지만 주변에서 마약하는 것을 목격했었다든가 하는 등 이와 관련한 내용을 구술한 사람들이다.

〈표 2〉 심층면접대상자의 마약 접촉 경험

| 마약접촉유형 | 빈도 | 면접번호 | 비고 |
|-------------|-----|---|--------------|
| 마약 직접 사용 | 14명 | 01. 02. 03. 04. 05. 06. 07. 08. 11. 12. 14. 15. 17. 18 | |
| 마약 북한 국내 유통 | 8명 | 02. 03. 05. 08. 09. 11. 14. 18 | |
| 마약 국외 유통 | 5명 | 04. 07. 08. 12. 18 | |
| 마약 생산 | 1명 | 09 | 마약사용경험 없음 |
| 마약 직접 경험 없음 | 3명 | 10. 13. 16 | 마약사용경험 없음 |

※ 국내유통: 북한 내 지역에서의 운송, 판매자; ※ 국외유통: 북한에서 중국으로의 운송, 판매자

“북한은 한집 건너 하나, 너무나도 그러니까 일반화가 됐으니까. 이제는 뭐 생일 같은날...뭐 좋은날 있으면 다 이걸(마약)로 있잖아요. 인사하고 이런 판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아...” (A-08)

“이제는 평양 100% 다...(중략) 안하는거 머저리라고 하죠. (중략) (경제력 여유 여부와 상관없이)네. 이젠 다 합니다. 조금만 아파도...늬은이들도 머리가 뺏뺏해지면...그거 해야지만 편하니까. 애들도 매일 사다가 한단 말합니다.” (A-15)

북한주민들이 이렇게 마약을 쉽게 사용하게 된다는 마약을 사고 파는 것이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 설명력을 얻고 있다. 마약을 “쌀보다 더 구하기 쉬운” 상품이라고 하였다(면접번호 A-18). 평양시, 함흥시, 회령시 뿐 아니라 시골 산골인 강원도 이천군까지 마약은 깊이 파고들었다. 북한 내에서는 이런 집을 소분집⁸⁾이라고 불렀다. 2000년 중반부터 평양시에서는 일반 개인집에서도 메스암페타민을 판매하였는데 심층 인터뷰 대상자들은 그와 같은 개인집이 ‘다수’였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2000년대 중반 메스암페타민) 개인집에서 다 팔았습니다. 장마당에서도 모르게 갖고 나와서는 자기네들 단골이 있으니까 팝니다. (중략) 다른 매대 하면서 하죠. (중략) 일반 약 파는 매대에서도 팔고. 대체로 보면 개인집에서 전화를 통해서 갖고 갑니다. (우리) XX구역 내 소분집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그거 안하고는 장사 효과 없습니다. 마약 장사해야지만, 장사가 되고 집안이 일어서니까. 돈 좀 버니까. (중략) 담배곽 안 에다 넣어서 가지고 다니다가 아는 단골 만나면 꺼내서 팝니다.” (A-15)

(3) 마약의 인지

설문조사 대상자의 61%는 자신 또는 주변사람들이 접촉하고 사용했던 물질이 마약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마약 인지여부는 1990

8) 마약을 생산자, 도매상, 중간상인 등으로부터 사들여 판매하는 소매상의 자택; ‘아트’라고 부르기도 함.

년대에는 17.6%에 그쳤던 것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 2배(33.6%)로 늘어났고, 2010년 이후 들어온 사람들의 경우 78%, 80% 등으로 증가하면서 2016년에 들어온 2명은 모두 이 물질이 마약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마약사용의 증가와 더불어 이 물질이 마약이라는 정확한 이해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 하겠다. 결과적으로 북한주민들은 최근에 올수록 자신이나 주변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마약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마약의 효과 인지

설문조사 대상자가 마약에 대한 정의와 인식을 일반적 기준과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치료제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26.6%로 마약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30.6%와 비슷하였다. 그러나 각성의 효과를 인지하고는 있어서, 각성제나 약한 환각의 효과를 내는 환각제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26.4%에 달했다.

<표 3> 최종 탈북연도에 따른 마약 효과 인지 여부(중복답변가능)

| 구분 | 미상 | 1990년대 | 2000년대 | 2010~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합계 |
|---------|------|--------|--------|-----------|------|------|------|------|-------|
| 마약(명) | 11 | 17 | 106 | 50 | 58 | 90 | 6 | 0 | 338 |
| 비율(%) | 28.2 | 20.2 | 30.0 | 31.1 | 35.2 | 33.0 | 25.0 | 0.0 | 30.6 |
| 환각제(명) | 5 | 7 | 33 | 7 | 17 | 19 | 4 | 0 | 92 |
| 비율(%) | 12.8 | 8.3 | 9.3 | 4.3 | 10.3 | 7.0 | 16.7 | 0.0 | 8.3 |
| 각성제(명) | 7 | 8 | 41 | 31 | 39 | 66 | 7 | 2 | 201 |
| 비율(%) | 17.9 | 9.5 | 11.6 | 19.3 | 23.6 | 24.2 | 29.2 | 50.0 | 18.2 |
| 치료제(명) | 10 | 20 | 89 | 57 | 43 | 67 | 5 | 2 | 293 |
| 비율(%) | 25.6 | 23.8 | 25.2 | 35.4 | 26.1 | 24.5 | 20.8 | 50.0 | 26.6 |
| 기타(명)** | 6 | 32 | 84 | 16 | 8 | 31 | 2 | 0 | 179 |
| 비율(%) | 15.4 | 38.1 | 23.8 | 9.9 | 4.8 | 11.4 | 8.3 | 0.0 | 16.2 |
| 합계 | 39 | 84 | 353 | 161 | 165 | 273 | 24 | 4 | 1,103 |

※ 기타 의견으로는 ‘다이어트약’, ‘양귀비는 소량은 치료제, 다량은 마약’ 등으로 답변하였음.

이 같은 결과는 최종입국 연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0년 입국자들은 치료제라고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23.8%로 가장 높았던, 반면 마약이나 환각제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그 보다 낮았다. 2010년 이후로는 치료제라고 인지하거나 마약이라고 인지하는 경우가 비슷하게 35.4%와 31.1%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 입국자들은 25%가 마약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반면 20.8%만이 치료제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북한에서 약품 부족으로 인해 마약을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밀수 등에 종사하는 경우 잠을 자지 않기 위해 각성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을 마약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마약의 의미보다는 조금 더 의료적인 차원의 강한 영향력을 가진 의약품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층면접조사 대상자의 다음의 진술은 북한주민들이 왜 마약을 치료제라고 인식하는지 잘 말해준다.

“혈전에 정말 그것 이상 없습니다. 우리 위에 할아버지가 혈전 앓아서...마비와서 몸을 못썼단 말이에요.. 이것도 혈전이 딱 와서 1주일 안에 약(마약)을 쓰게 되면 회복하는데요” (A-01)

“(약을) 시킵니다, 감기 왔다 하고, 대장염 왔다 하면... (중략) 아니 그니까...이제처럼 전문적으로 하는 집들은 아이들도 다 단단 말입니다. 할머니가 다리 아파서 이거(얼음) 하겠다고 하면, 조그만 아이들 보면...‘할머니 나 다리 아파요. 한 코 할래. 한 코 할래’... (주: ‘한 코 할래’라고 하는 아이의 연령을 묻자 유치원 다니는 아이였다고 함, 당시가 2010년-2011년이라고 함)” (A-15)

(5) 마약의 유해성 및 중독성 인지

설문조사 대상자는 마약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정확한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였다. 59.9%가 유해성에 관해 모른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마약이 얼마나 건강에 유해한가에 대한 이해도

(평균 40.1%)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1990년대에 탈북한 조사대상자는 유해성을 인지하는 수준이 22.1%에 그쳤으나, 2000년대는 31.2%, 2010-2012년도에 들어 탈북한 대상자는 43.1%였으며, 2013년도 50.0%, 2014년도 47.3%, 2015년에는 60.9%였고, 2016년에 탈북한 조사대상자는 2명 모두 유해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북한주민 사이에서 마약이 건강에 해롭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아져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 최종탈북연도에 따른 북한 주민의 마약 중독 인지

| 구분 | 미상 | 1990 년대 | 2000 년대 | 2010~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합계 |
|-----------|------|------------|------------|---------------|------|------|------|-------|------|
| 10% 이하(명) | 14 | 12 | 72 | 50 | 70 | 88 | 7 | 0 | 313 |
| 비율(%) | 46.7 | 48.0 | 36.0 | 33.3 | 35.0 | 29.6 | 29.2 | 0.0 | 33.7 |
| 10~30%(명) | 6 | 2 | 63 | 48 | 54 | 92 | 7 | 0 | 272 |
| 비율(%) | 20.0 | 8.0 | 31.5 | 32.0 | 27.0 | 31.0 | 29.2 | 0.0 | 29.3 |
| 30~50%(명) | 5 | 2 | 33 | 26 | 40 | 71 | 7 | 0 | 184 |
| 비율(%) | 16.7 | 8.0 | 16.5 | 17.3 | 20.0 | 23.9 | 29.2 | 0.0 | 19.8 |
| 50~70%(명) | 5 | 7 | 24 | 20 | 29 | 29 | 2 | 0 | 116 |
| 비율(%) | 16.7 | 28.0 | 12.0 | 13.3 | 14.5 | 9.8 | 8.3 | 0.0 | 12.5 |
| 70~90%(명) | 0 | 2 | 5 | 6 | 6 | 16 | 1 | 0 | 36 |
| 비율(%) | 0.0 | 8.0 | 2.5 | 4.0 | 3.0 | 5.4 | 4.2 | 0.0 | 3.9 |
| 90% 이상(명) | 0 | 0 | 3 | 0 | 1 | 1 | 0 | 2 | 7 |
| 비율(%) | 0.0 | 0.0 | 1.5 | 0.0 | 0.5 | 0.3 | 0.0 | 100.0 | 0.8 |
| 합계 | 30 | 25 | 200 | 150 | 200 | 297 | 24 | 2 | 928 |

※ 무응답: 539명

한번 시작하면 끊지 못하는 마약의 특성 때문에 북한주민들이 마약에 중독되는 비율은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대상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1990년대는 북한주민들이 마약에 중독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 미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48%였던 반면 2014년과 2015년에는 30%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그 자리를 10% 이상 50% 미만이 중독되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로 채워졌는데, 1990년대 8%였던 것이 2014년에는 31%-23.9%, 2015년에는 약 30%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 주민들이 마약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사용자의 수와 빈도는 증가하고 있고, 중독성에 노출되어 마약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더 많이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독된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그저 무조건 그저... 그저 해야지만... 밖으로 나오지 그저. 멀쩡한데도 마약 돈 없어서 못하면, 미물처럼 난단 말예요. 그저 반네미⁹⁾처럼 취급되요. 평양 길거리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A-17)

“만약에 이게 다시 생각나면... 무슨 효과 때문에 그럴까요? 그거 맛을 들인 이상 있잖아요. 그니까 그 다시 보게 되거나, 환경이 되면 그 무조건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모든 사람이 다... 난 그걸 애착이라... 그거 난 떨근 사람을 못 봤어요. 그걸...” (A-08)

3. 북한주민들의 마약 중독 피해

설문조사 대상자는 북한주민들이 마약사용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55.9%에 달하고 있었으나, 피해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44.1%라는 것은 꽤 많은 사람들이 자신 또는 주변의 마약사용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약사용의 피해를 매우 심각하거나 약간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가 36.1%로 높았으며 별 피해가 없거나 전혀 피해가 없다고 답한 경우는 7.9%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는 시기별로 상당히 다른 답변을 보이고 있다. 초기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아서 1990년대 84%였으나, 최근에 올수록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줄어들고 약간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이해

9) ‘바보’의 방언(평안도, 황해도). 네이버 오픈사전(<http://krdic.naver.com/search.nhn?q=uey=%EB%B0%98%EB%82%B4%EB%AF%B8&kind=all>)

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현재 북한의 마약사용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정도가 심각하다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심층면접 대상자의 답변은 설문조사 대상자들이 말하는 신체적 피해가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머리로 아프고 식욕이 떨어져서 밥맛도 없고 잠도 못자는 불면의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힘이 남아돌아가는 것도 신체적 피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5〉 최종탈북연도에 따른 마약 사용의 신체적 피해 정도 이해수준

| 구분 | 미상 | 1990년대 | 2000년대 | 2010~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합계 |
|-------------|------|--------|--------|-----------|------|------|------|-------|-------|
| 매우 심각(명) | 4 | 3 | 37 | 28 | 46 | 72 | 6 | 2 | 198 |
| 비율(%) | 8.9 | 3.0 | 9.1 | 13.9 | 21.1 | 21.0 | 22.2 | 100.0 | 14.7 |
| 약간 심각(명) | 7 | 8 | 39 | 45 | 71 | 111 | 7 | 0 | 288 |
| 비율(%) | 15.6 | 8.0 | 9.6 | 22.3 | 32.6 | 32.4 | 25.9 | 0.0 | 21.4 |
| 별 피해 없음(명) | 4 | 3 | 17 | 24 | 17 | 34 | 4 | 0 | 103 |
| 비율(%) | 8.9 | 3.0 | 4.2 | 11.9 | 7.8 | 9.9 | 14.8 | 0.0 | 7.7 |
| 전혀 피해 없음(명) | 0 | 2 | 1 | 0 | 0 | 0 | 0 | 0 | 3 |
| 비율(%) | 0.0 | 2.0 | 0.2 | 0.0 | 0.0 | 0.0 | 0.0 | 0.0 | 0.2 |
| 잘모름(명) | 30 | 84 | 312 | 105 | 84 | 126 | 10 | 0 | 751 |
| 비율(%) | 66.7 | 84.0 | 76.8 | 52.0 | 38.5 | 36.7 | 37.0 | 0.0 | 55.9 |
| 합계 | 45 | 100 | 406 | 202 | 218 | 343 | 27 | 2 | 1,343 |

※ 무응답: 124명

“심장이... 이거 하나씩 심장이 나빠지더라구요”(A-08)

“아시잖아요. 머리 아프고.. 머리가 자꾸 아프고, 입맛이 안생기고, 식욕이 떨어지고 그래요”(A-02)

“처음에 병두하니까 각이 서고... 뭉랄까 이거.. 힘이 남아 돌아가고 힘든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씩 입술마르고. 하루종일 밥을 못먹겠지만. 밥맛이 싹 없어지고. 잠 한잠도 못자고. 그거 하고 한 이틀간 못

졌어요.” (A-17)

신체적 피해 못지않게 정신적 피해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역시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가 52.9%에 달했으나, 47.1%가 정신적 피해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40.7%의 응답자들이 매우 심각하거나 약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경우는 단지 6.1% 뿐이었다. 이는 탈북한 시점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매우 심각하다는 생각이 1990년대에는 3.2%에 머물렀다면 2013년도에는 29%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에는 100%에 달하는 2명 모두 정신적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하였다. 반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90년대와 2000년대까지는 83.2%, 75.6%를 보였으나, 이후로 급격히 감소하여 2016년에는 0%, 2015년에도 25.9%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에서 마약 사용은 물론이고 그 피해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대부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6〉 최종탈북연도에 따른 마약 사용의 정신적 피해 정도 이해수준

| 구분 | 미상 | 1990 년대 | 2000 년대 | 2010~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합계 |
|-------------|------|------------|------------|---------------|------|------|------|-------|-------|
| 매우 심각(명) | 7 | 3 | 44 | 29 | 63 | 82 | 7 | 2 | 237 |
| 비율(%) | 15.6 | 3.2 | 10.9 | 14.4 | 29.0 | 23.6 | 25.9 | 100.0 | 17.7 |
| 약간 심각(명) | 5 | 7 | 34 | 59 | 65 | 128 | 9 | 0 | 307 |
| 비율(%) | 11.1 | 7.4 | 8.5 | 29.2 | 30.0 | 36.9 | 33.3 | 0.0 | 23.0 |
| 별 피해 없음(명) | 3 | 6 | 17 | 15 | 10 | 26 | 4 | 0 | 81 |
| 비율(%) | 6.7 | 6.3 | 4.2 | 7.4 | 4.6 | 7.5 | 14.8 | 0.0 | 6.1 |
| 전혀 피해 없음(명) | 1 | 0 | 3 | 0 | 0 | 1 | 0 | 0 | 5 |
| 비율(%) | 2.2 | 0.0 | 0.7 | 0.0 | 0.0 | 0.3 | 0.0 | 0.0 | 0.4 |
| 잘 모름(명) | 29 | 79 | 304 | 99 | 79 | 110 | 7 | 0 | 707 |
| 비율(%) | 64.4 | 83.2 | 75.6 | 49.0 | 36.4 | 31.7 | 25.9 | 0.0 | 52.9 |
| 합계 | 45 | 95 | 402 | 202 | 217 | 347 | 27 | 2 | 1,337 |

※ 무응답: 130명

북한주민들의 마약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유형 및 심각성은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진술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심한 우울, 심한 불안, 환청, 환시, 환촉 등이 자주 나타난다고 증언하고 있다. 벌레나 귀신같은 헛것이 보인다고거나 벌레가 기어다닌 것 같은 느낌이 온몸으로 느껴진다고거나 하는 환각상태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마약사용으로 인해 주로 경험하는 피해증상이다. 통제가 불가한 폭력행동을 보이면서 공격적이 된다면, 싸우고 때리는 행동, 망상적 사고, 퇴행 및 위축, 주의력 및 지남력 감퇴도 마약 사용 시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다.

“헛것이 보이거나 들리거나. 그런 감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누우면.. 이..이게 있잖아요. 천장에... 천장지에 뱀이 있잖아요 막... 뱀 여러 마리가 천장을 기어다니는 그런 감을 내가 느꼈어요. 그리고 이 우리는 땅집이 이 독집이 제일 끝 집이었는데 옆에 마당이 컸어요. 창고에 내가 우리 처가 어떨 때 말할 때 보면, 이 바깥에 있잖아요.. 계속 나를 감시하는 것처럼. 창문으로. 그런 감각까지 난 왔었어요. 날 잡으러 아니오나. 막 이런 감각이 계속 오더라고요.” (A-08)

“맞아요 의심병. 그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예민해지다보니까 조그만 한 일에도 크게 화를 내고 정말 일도 아닌 것 가지고 크게 싸우고 그런거죠.” (A-06)

자살사고나 자살시도 역시 마약 사용 시 자주 나타나는 현상으로, 환각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여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약물의 중독으로 인해 장기에 쇼크나 무리가 와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

마약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을 듣거나 본 사람의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보거나 들은 적 없다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반면 들은 적 있다는 사람들은 1990년대 4.1%에서 2000년대 6.5%, 2010년대 21.9%로 증가한 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2015년 34.6%에 달했다. 직

접 목격했다는 사람도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 4.1%에서 2010년 7.7%로 늘었는데, 2014년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가 2015년 26.9%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2016년 응답자인 2명은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들은 적은 있다고 하였다.

〈표 7〉 최종탈북연도에 따른 마약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 목격 비율

| 구분 | 미상 | 1990 년대 | 2000 년대 | 2010~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합계 |
|------------|------|------------|------------|---------------|------|------|------|-------|-------|
| 목격함(명) | 0 | 4 | 15 | 15 | 27 | 46 | 7 | 0 | 114 |
| 비율(%) | 0.0 | 4.1 | 3.7 | 7.7 | 12.4 | 13.4 | 26.9 | 0.0 | 8.6 |
| 들은 적 있음(명) | 8 | 4 | 26 | 43 | 57 | 100 | 9 | 2 | 249 |
| 비율(%) | 17.4 | 4.1 | 6.5 | 21.9 | 26.1 | 29.2 | 34.6 | 100.0 | 18.7 |
| 그런 적 없음(명) | 10 | 16 | 55 | 22 | 52 | 51 | 4 | 0 | 210 |
| 비율(%) | 21.7 | 16.3 | 13.6 | 11.2 | 23.9 | 14.9 | 15.4 | 0.0 | 15.8 |
| 잘 모름(명) | 28 | 74 | 307 | 116 | 82 | 146 | 6 | 0 | 759 |
| 비율(%) | 60.9 | 75.5 | 76.2 | 59.2 | 37.6 | 42.6 | 23.1 | 0.0 | 57.0 |
| 합계 | 46 | 98 | 403 | 196 | 218 | 343 | 26 | 2 | 1,332 |

※ 무응답: 135명

“(사망사유를 묻자) 마약 사용... (중략) 심장쇼크죠. 아..엄청나게 하
셔가지고, 너무 너무 많이 하셔서 심장 쇼크로 사망한거죠” (A-12)

그런가 하면 두 가지 이상의 마약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하나의 부작용을 다른 하나의 마약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헤로인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코로 가루를 뺀다고 해요.
그런데 말하는거 들어보니까 ‘얼음해서 머리 아플 때, 이 헤로인 한 번
빨면 머리가 맑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중독성이 더 쎈 것 같아요.”
(A-11)

메스암페타민에 의해 생긴 흥분, 편집증, 불면증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헤로인 사용이라는 더 위험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중독이 더 쎈 것 같다고 하면서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북한의 마약 중독 치료 및 예방

북한에서 마약중독 치료와 예방을 위한 체계는 거의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에게 있어 주민들의 마약 문제는 단속과 처벌의 문제로 인식될 뿐 치료하거나 예방 대상으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마약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질환 발생 시 치료나 여타의 대응을 할 수 있는 보건 의료 제도나 장치는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밝혀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 마약에 대한 치료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임의적인 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다보니 이것은 치료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방에 대해서는 감히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

심층면접을 통해 밝혀진 치료행태를 종합해보면 대략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비타민과 심장병 환자용 약물을 링거로 투약하는 방법이다. 링거 투약 시에도 의사 자격이 없는 링거 판매상 등을 통해 실시되었다. 북한 주민들은 비타민 등의 링거 투약이 검증된 치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링거를 투약하면 피가 정화된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즉, 북한 주민들은 메스암페타민의 ‘독’이 신체에 침투하기 때문에 이를 정화해야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이와 같은 임의적인 치료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주사라는데...여기로 말하면 링겔(링거/수액) 있잖아요. 피를 세

적하느라고...이거 계속 몸을 세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척이라
는게 링겔(링거/수액)을 꽂고.... 집에서 하지요. 의사들에게 세척해 달
라 하면 (중략) 그래서 심장약에다가 꽃가루랑 이런 좋은약 있잖아요.
아 그 꽃가루랑게 이...심장에 좋은 약이에요. 그런거 가져오라고 하면...
비타민 이런거랑 섞어서 주사를 계속 맞고 이래서 몸을 유지했어요. 해
독될 때까지...따로 치료랄게 없어요. 그리고 잠이 아니 올 때는 거기에
다가 수면제 있잖아요 주사. 그런것도 같이 찢르다나면 같이 섞어준단
말이에요. 그거 맞으면서 잠 든다 말이에요.”(A-08)

둘째, 한증탕이나, 안마 시술을 통해 땀을 빼는 등의 방법이다. 이 같
은 자체 치료 행위는 의외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역시 메스암
페타민의 ‘독’을 땀을 통해 배출시키면 신체에 보다 도움이 되는 것으
로 판단하고 있어 행해지는 일종의 임의적인 치료 행위이다.

“북한은 개인집에서 찜질방 하는데가 많아요. 그 안에 열이 어마어
마하게 나게 하는거예요. 1997년도 때 그랬나. 1998년도. 이렇게 앉으
면 피부에서 분수처럼 뿜어 쏘요(가슴쪽 피부에서 분수처럼 물이 솟는
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나오면 몸이 개운하고, 잠도 푹 오고. 많은
사람들이 가죠” (A-04)

나도 치료 받았는데, 평양에서 (이곳 청진으로) 그 때 그...안마사가
들어왔어요. 안마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을 있잖아요. 뽑아준데요. 독
뽑아준다. 머리부터 있잖아요. 발끝까지 안마해주는데, 그 사람이 1시
간 정도나 해줄 때는...땀이 나잖아요. 그런데 나는 실지 당시 그 때 나는
종긴 좋더라고요. 시원하더라고요. 사람이...감각에 좋다고 생각해서 그
렇지. 어쨌든 안마도 종긴 좋더라고요. 몸에. 가쁜하고. 효과는 그냥 시
원하거예요..” (A-08)

셋째, 병원 입원을 통해 치료를 받는 방법이다. 물론 마약중독자들이
설령 자발적 치료를 원한다 하더라도 북한에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의
료기관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중독 상태가 심각한 경우 49

호 병동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정신병원에 보내지는 경우가 일부 있으나, 마약 중독에 대한 전문 병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층면접조사에 밝혀진 마약 치료 관련 시설은 북한의 각 도, 시·군에 있는 ‘49호 병원(보양소)’과 평양의 일부 특수계층을 위한 마약 관련 치료 병원인 평양 소재 인민무력부 군의국 산하 조선인민군종합병원, ‘11호 병원’ 등이다. 그 이용 대상과 자격조건, 소요 비용 등에 대해서는 경험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11호 병원’은 평양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병원으로 마약 치료를 위한 기능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간부, 고위층 또는 일부 특수계층이나 부유한 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실제로 마약 치료를 위한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를 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러한 기능을 하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

“전문적으로 치료하는데가 있다 해요. 있단 말입니다. 중독 걸린 사람들은 평양11호 병원 가는거, 거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11호 병원은...특정 인간들을 위한 병원인데 그계. 우리로 말하면 특... 네. 특수계층을 위한 병원이다 말입니다. 중앙당, 도당 11호 병원 대상들이 다 그쯤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후에는 이게 돈이 많이 있으면 그 정도까지는 다 갈 수 있죠.” (A-12)

북한에서도 마약 중독을 끊어야겠다는 생각과 노력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스스로 끊어보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한국으로의 입국 동기를 자신의 마약중독을 끊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는 사례도 있었다. 자신의 환경을 극단적으로 변화시키기 전에는 마약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탈북을 감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마약은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는게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도 끊으려고 노력하는데, 끊기 위해서 노력이란게 있잖아
요... 어쨌든 보지말고. 아니한다, 아니한다, 사람들마나 이런데... 끊는
다는게... 한달까지 안해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또 보게 되면...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하게 되요 그거 어려워요” (A-08)

5. 북한의 마약 사용에 대한 단속과 처벌

북한 당국도 북한 주민들의 마약 사용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주민들의 마약사용에 대해 북한 당국이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엄격 단속이 6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간혹 단속(25.4%), 거의 단속 않음(3.5%), 전혀 단속 없음(2.0%) 순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와 2015년을 비교해 보면 엄격 단속과 간혹 단속을 합한 비율이 84.9%와 100.0%로 마약이 북한사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초기부터 마약 단속은 엄격하게 실시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8〉 최종 탈북연도에 따른 마약 사용 단속

| 구분 | 미상 | 1990 년대 | 2000 년대 | 2010~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합계 |
|------------|------|------------|------------|---------------|------|------|------|-------|-------|
| 엄격 단속(명) | 30 | 29 | 207 | 129 | 148 | 245 | 19 | 2 | 809 |
| 비율(%) | 71.4 | 54.7 | 65.3 | 69.4 | 69.8 | 74.0 | 70.4 | 100.0 | 69.1 |
| 간혹 단속(명) | 9 | 16 | 84 | 49 | 62 | 69 | 8 | 0 | 297 |
| 비율(%) | 21.4 | 30.2 | 26.5 | 26.3 | 29.2 | 20.8 | 29.6 | 0.0 | 25.4 |
| 거의 단속않음(명) | 3 | 3 | 12 | 8 | 2 | 13 | 0 | 0 | 41 |
| 비율(%) | 7.1 | 5.7 | 3.8 | 4.3 | 0.9 | 3.9 | 0.0 | 0.0 | 3.5 |
| 전혀 단속없음(명) | 0 | 5 | 14 | 0 | 0 | 4 | 0 | 0 | 23 |
| 비율(%) | 0.0 | 9.4 | 4.4 | 0.0 | 0.0 | 1.2 | 0.0 | 0.0 | 2.0 |
| 합계 | 42 | 53 | 317 | 186 | 212 | 331 | 27 | 2 | 1,170 |

※ 무응답: 297명

북한 당국의 마약 단속 결과는 다양한 형태의 처벌로 귀결되었다. 북

한 당국의 처벌은 교화소에 끌려가는 경우가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뇌물주고 나오는 경우¹⁰⁾도 23.1%로 높게 나타났다. 단련대에 끌려가거나(14.3%) 공개처형을 당하는 경우도(12.0%) 있었으며,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경우도 5.6%로 나타났다. 1990년대와 2015년을 비교해 보면 공개처형의 경우 1990년대 21.9%에서 2010-2012년 10.9%, 2013년 10.4%, 2014년 8.9%, 2015년 6.3%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북한의 공개처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공개처형의 마약단절 비효과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표 9> 최종 탈북연도에 따른 마약 사용으로 인한 처벌 수준

| 구분 | 미상 | 1990년대 | 2000년대 | 2010~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합계 |
|-----------|------|--------|--------|-----------|------|------|------|------|------|
| 공개처형(명) | 5 | 7 | 32 | 16 | 15 | 21 | 1 | 2 | 99 |
| 비율(%) | 18.5 | 21.9 | 14.0 | 10.9 | 10.4 | 8.9 | 6.3 | 50.0 | 12.0 |
| 정치범수용소(명) | 2 | 6 | 18 | 8 | 3 | 9 | 0 | 0 | 46 |
| 비율(%) | 7.4 | 18.8 | 7.9 | 5.4 | 2.1 | 3.8 | 0.0 | 0.0 | 5.6 |
| 교화소(명) | 7 | 10 | 89 | 67 | 67 | 117 | 6 | 1 | 364 |
| 비율(%) | 25.9 | 31.3 | 39.0 | 45.6 | 46.5 | 49.8 | 37.5 | 25.0 | 44.0 |
| 단련대(명) | 3 | 2 | 24 | 19 | 29 | 37 | 3 | 1 | 118 |
| 비율(%) | 11.1 | 6.3 | 10.5 | 12.9 | 20.1 | 15.7 | 18.8 | 25.0 | 14.3 |
| 처벌없음(명) | 1 | 0 | 5 | 0 | 1 | 2 | 0 | 0 | 9 |
| 비율(%) | 3.7 | 0.0 | 2.2 | 0.0 | 0.7 | 0.9 | 0.0 | 0.0 | 1.1 |
| 뇌물주고나옴(명) | 9 | 7 | 60 | 37 | 29 | 49 | 6 | 0 | 191 |
| 비율(%) | 33.3 | 21.9 | 26.3 | 25.2 | 20.1 | 20.9 | 37.5 | 0.0 | 23.1 |
| 합계 | 27 | 32 | 228 | 147 | 144 | 235 | 16 | 4 | 827 |

※ 무응답: 640명

북한 당국에 적발될 경우 이들은 처벌을 받기 위해서 교화소 같은 구

10) 북한에서 뇌물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상화되어 있으나, 뇌물을 제공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 처벌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금시설에서 장기간 구금되어 구타와 강제노동에 처해지거나 방치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병원 가는거 못봤어요. 거기는 병원... 운영 자체가 돌아 안가기 때문에...교화소 가서 줄라 두들겨 맞는다고... 그제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 가둬놓고 두들겨 패는거.” (A-11)

“그 때가 한 2000년도 되요. 2001년도 사이 되요. 개도 그 약을 쓰다가 결국 중독이 온거예요. 이제는 그 약을 달고 살아요. 개는 팔 보게 되면 자기가...이제는 경찰들도 다 알아요. 이제는. 이제는 놔둬요. 그렇게 놔둬 버리는 애들도 많아요. 데리고 가봤자 가면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놔둬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데리고 가봤자 가면 죽어버리니까. 내버려 두더라고.” (A-16)

V. 논의 및 제언

현재 북한 주민들의 마약사용 및 중독 인구는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신체, 정신적인 피해도 심각하여 사망에 이르는 수도 증가추세에 있다. 이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이후부터 ‘얼음’으로 알려진 메스암페타민은 누구라도 접할 수 있는 마약이 되었으며, 일정 기간 주춤했던 아편은 최근 들어 국경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소비되고 있다. 현재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메스암페타민의 소비는 ‘별 것’ 아닌,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북한 마약 문제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북한 당국은 자체적인 해결능력과 의지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마약은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아시아와 유럽 등지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메스암페타민 중 50%는 북한산으로 알려져 있다(연합뉴스 12/02/06; KBS TV 추적 60분 16/11/09). 또한 북한 마약 문제는

통일 전후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이고 사회 환경의 개선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북한 마약문제는 북한과 유엔 및 국제기구, 그리고 한국정부의 협력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해결 대책을 개발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1. 북한의 과제와 제언

첫째, 북한 당국은 마약중독을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주민들은 마약을 구하기 위해 집과 재산은 물론이고 국가 재산까지도 착복하여 마약을 구하고 있다. 다수의 주민들은 마약에 중독되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문란하게 유지하면서도 큰 죄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다.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마약이 가정파괴의 주범이자 사회문제의 유발자임을 말해주고 있다.

“약 선이 끊기게 되면 ... 약 하기 위해서 (중략) 다 팔아먹고, 마지막엔 집까지 팔아먹는거예요...여기 범죄로 보면, 강도라던가. 뭐.. 집에 문 뜯고 도둑질 한다던가. 별난 놈 많죠. 약하기 위해서는. 또 국가재산들 공장들 들어가서 전동기 뜯어서 동 판다던가. 하여튼 돈 되는 건 다 한다고 봐야겠죠.” (A-11)

“내가 말하는게 이거는 북한에서 내가 오죽했으면, 뭐라고 말했는가. 이걸 첫째, 이 마약, 빙두가 없어져야지. ‘우리 가정의 원수’. 가정의 원수라고 내가 말했어요.....이거하면 부모, 처자식도 못 알아 보고.” (A-01)

빈집털이, 가택침입, 상점털이, 강도, 폭행, 강간, 방화, 살인, 이런 사회문제는 마약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의 전형적인 문제들이다. 북한 주민들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문제들에 연루되어 있음을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증언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

은 심각성과 치료 및 예방 대책 마련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마약을 끊기 위해’ 탈북했다는 심층면접 대상자도 있었다.

“그러니까. 나도 실지 대한민국 온 거도 왜 왔는가. 그 이... 그것 때문에...북한에 있어서 이것을 맛에 들이면 사람일 못해요. (문: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약 끊기 위해 한국에 오신 분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예요.” (A-08)

따라서 북한 당국은 마약의 위험성과 사회적 피해를 인지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할 것이다. 이 상태 그대로 둔다면 북한사회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법질서에 근거한 생활까지 파괴될 위험성을 갖고 있다.

둘째, 전문치료진을 양성함과 동시에 전문 치료기관을 운영해야 한다. 북한에는 전문치료기관은 전무하고 전문적인 치료체계도 없는 실정이다.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것으로 치료를 대신하는 정도였다. 마약 치료 전문 의료진과 전문가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에 전문치료기관의 설치가 시급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기존 병원들을 마약전문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속히 취해야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정된 전문치료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담당할 전문 치료진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기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UN은 1997년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을 설치하고 이전의 마약치료프로그램센터와 국제범죄예방센터를 합하면서 이 기구를 마약퇴치를 위해 싸우는 국제적인 리더기구로 만들었다. 이 기구는 UN 회원국들이 마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 협조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갖고 있는 기구이다. 따라서 UN이나 미국 등 이미 마약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던 국제사회

와 협력하여 UNODC 등의 선진 전문치료기구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의 마약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

2. 유엔 및 국제사회의 과제와 제언

첫째, 객관적 실태조사 실시이다. 유엔의 UNODC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유용한 기구들은 북한 마약사용의 실태를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여 통일한국을 준비함에 있어 북한의 심각한 마약사용이 또 하나의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북한 마약이 국내외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북한에서 마약을 사용하던 북한이탈주민들은 국내 입국 후에도 마약밀매라는 범죄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마약을 경험했거나 중독된 경우 마약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유혹 때문에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쉽게 잡으려 한다. 따라서 UNODC처럼 국제적으로 마약이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근절하겠다는 목적을 공유하는 국제사회는 적극적으로 북한 마약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접근하여 북한의 마약을 한국과 제3국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조직적 범죄를 미연에 차단하는 법적 방지대책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북한 마약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 상호간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 마약의 문제는 동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문제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해야 할 우리 시대의 필수과제이다. 따라서 국제기구들은 지금부터 북한의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 상호간 협력 및 남북한과의 협력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한국의 과제와 제언

첫째, 한국정부는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 당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마약은 현재 북한주민과 북한 사회의 문제이지만 향후 통일과정에서 통일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일 이전에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간 회담과 협력, 전문기관간 협력 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실태조사와 진단 및 치료 서비스 지원,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시설 건립 및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대응해야 한다. 마약 중독 상태인 북한 주민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통일을 맞이한다고 하였을 때 이 사태가 초래할 사회적 비용은 매우 높을 것이다.

둘째, 유엔 전문기구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북한 마약문제는 북한 당국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해결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정부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에 유엔 마약 전문기구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가와 국제사회의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한국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마약사용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데 국제사회의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들은 마약사용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지만 마약을 쉽게 접하고 쉽게 사용하는 주변 환경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앞서 국제사회에 제안한 과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환경이 북한에서 지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기구들과 협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보호 및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관련법률」의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에 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2007년에 개정된 이 조항은 ‘항공기 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 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에 대하여서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고 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이 마약을 경험했었고, 또한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비보호자로 결정될까 두려워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비보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을 밝히기 어려우며, 실제로 어디로 가서 상담을 받고 치유를 받아야 할지조차 모르고 지내면서 마약으로 인한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한국 사회에 나와 주변인들의 유혹에 흔들려 직접 마약 밀수에 가담하거나 또는 사용 판매자 역할을 하다 수감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마약사용을 이들의 잘못으로만 규정지을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약사용에 관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사용을 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마약치료의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심리정서 치유 기관의 설치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의 양성도 필요하다.

넷째, 북한 마약생산, 유통, 사용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를 정례적으로 장기간 진행하여야 한다. 한 심층면접 대상자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건 인간으로서 인체 내에서 도움 되는 것은 한 가지도 없다. 그리고 이게 지금 북한 실정에서는 어디에다가 사용해야할지. 그리고 그게 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꾸 전파되고, 없어지지 않고 증폭되는지. 이걸 북한 당국이 우선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북한도 물론 선전하고

단속도 하지만... 이게 돈으로 이루어지는게 기본 목적이예요. 지금 북한 주민들한테.. 이 문제를 풀지 않게 되면 북한은 절대적으로 그걸 우선 생산한거 단호하게 없애버려야 해요. 그리고 선전, 의학적 선전과 건강 해독성을 널리 선전해야 되요. 그리고 더 공개하고... 사람이 종말이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A-14)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는 북한마약사용의 실태와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밀도 있게 조사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는 과학적인 자료의 수집만이 북한 마약사용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정확한 파악만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투 고 일: 2018년 1월 15일

심사완료일: 2018년 2월 7일

게재확정일: 2018년 2월 7일

참고문헌

- 국가안전기획부. 1998. 『21C 새로운 위협 국제범죄의 실체와 대응』. 서울: 국가안전기획부.
- 김석주 · 박영수 · 이해원 · 박상민. 2012. “북한 의사들이 바라보는 북한의 정신의학 현황”. 『정신신체의학』 20(1): 32-39.
- 김진숙. 2012. “북한 의약품정책의 특징과 한계 분석”. 『보건사회연구』 32(4): 631-665.
- 미샤 글레니 저. 이종인 역. 2008. 『국경 없는 조폭 맥마피아』. 서울: 책으로 보는 세상.
- 박상민 · 이해원. 2013.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효율적 지원방안.” 『대

한의사협회지』 56(5): 368-374.

빅터 차 저 · 김용순 역. 2016. 『불가사의한 국가: 북한의 과거와 미래』.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신희영 · 이해원 · 안경수 · 전지은. 2016. “김정은 시대 북한 보건의료체계 동향: 전달체계와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8(2): 181-211.

양옥경. 2016. “북한 주민의 마약 사용 현황과 과제.” (사)북한인권정보센터 편.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 마약문제 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 자료집』.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이관형. 2016. “북한 주민의 마약 소비 실태.” (사)북한인권정보센터 편.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 마약문제 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 자료집』.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이미진 · 김하나 · 조단비 · 김소윤. 2013. “북한의 보건의료시스템.” 『대한의사협회지』 56(5): 358-367.

이혜경. 2013. “북한의 ‘보건일군’ 양성정책 연구: 체제수호 전위양성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성권. 1999. “북한 마약밀매의 실태와 대응방안.” 『정책연구』 131.

최현규. 2010. “북한의 의료 부문 연구인력의 교육체계와 문제점.” 『북한 과학기술연구』 6.

함중영. 2017. “북한의 국제조직범죄 활동과 대응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Chestnut, Sheena. 2007. “Illicit Activity and Proliferation-North Korean Smuggling Networks.” *International Security* 32(1).

Clayton, Matthew. 2012. “Drugs in the DPRK 2006-2011: A quantitative analysis.” NK News.

Lankov, Andrei and Kim, Seok-hyang. 2013. “A New Face of North Korean Drug Use: Upsurge in Methamphetamine Abuse Across the

- Northern Areas of North Korea.” *North Korean Review* 9(1).
- Perl, Raphael F. 1999. *North Korean Drug Trafficking: Allegations and Issues for Congress(CRS-RS20051)*. Washington D.C: Congress Research Service.
- Perl, Raphael F. and Dick K, Nanto. 2007. *North Korean Crime-for-Profit Activities(CRS-RL33885)*. Washington D.C: Congress Research Service.
- Yun, Minwoo. and Kim, Eunyoung. 2010. “Evolution of North Korean Drug Trafficking: State Control to Private Participation”, *North Korean Review* 6(2).

뉴스 기사

1952. “북한서 마약밀수출 일본서 유엔에 보고.” 『동아일보』(5월 5일).
1955. “삼분지이는 북한 등지서 각종마약밀반입 루트.” 『동아일보』(12월 3일).
1958. “마약단속에는 밀수로 봉쇄만이 첩경.” 『경향신문』(3월 26일).
1960. “국제마약밀수적발 한 일인으로 조직.” 『동아일보』(2월 13일).
2002. “마약상 위장 최영재 기자 북한산 마약 밀매 현장 최초 확인: ‘목숨? 기건 담보못하오 물건? 기건 확실하디요.’” 『신동아』(9월)
2003. “북, 76년 이후 마약밀매 개입-세계 3위의 아편생산국.” 『YTN』(5월 22일)
2004. “북한 최근 마약수출로 연간 5억 달러 벌어들임.” 『자유아시아방송 (RFA)』(8월 4일).
2005. “북, 마약거래 연루 지속 우려 대상.” 『연합뉴스』(9월 16일).
2006. “북, 2004년 이후 마약거래 적발 없어.” 『연합뉴스』(9월 19일).
2011. “NORTH KOREA'S METH EXPORT.” *Newsweek*(6월 19일)
2012. “윤상현 ‘국내반입 마약 절반 이상이 북한산.’” 『연합뉴스』(2월 6일).

2013. “‘Murky’ drug trade: How did North Korea become a meth hub?.”
NBCNEWS(12월 7일).
2014. “In North Korea, meth is offered as casually as a cup of tea.” *Los Angeles Times*(1월 27일).
2016. “밀착취재! 국내 파고든 북한 마약.” 『KBS TV 추적 60분(1221회)』
(11월 9일).

기타자료

국가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is.go.kr>).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네이버 오픈사전(<http://krdic.naver.com>).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http://www.drugfree.or.kr>).

통일부 통계자료

북한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약관리법』(2005년 5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31호로 수정보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2015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원회 정령 제578호로 수정보충).

Abstract

North Korea's Illegal Drug Use and Abuse: Current Situation and Solutions

Yang, Ok Kyung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Yoon, Yeo-sang

President, North Korean Human Rights Archives

Lee, KwanHyung

Researcher, Data 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Kim, Sung-Nam

Doctoral Candidate,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 of illegal drug use and abuse among North Koreans and provide suggestions and strategies for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unter this issue. The survey was distributed to the 1,467 North Korean defectors during the period of 2014 through 2016 and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18 who had been actually involved in produce, distribution, and use of illegal drug.

The survey findings revealed 16.5% had experienced drug use and many of them were aware that the substance they had was illegal drugs such as narcotics. The frequency of drug use was on the rise. At present, drug use in North Korea seems common and popular which anyone can

access, regardless of age, gender, or other social background. In-depth interviewees revealed that many drug users have become addicted, and they were 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is condition. Nonetheless, they informed that there was no treatment or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those drug addicts in North Korea. Although those drug addicts were punished in detention centers or prisons, or even executed in public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legal and institutional regulations are not actively enforced.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oints out that North Korea needs to counteract the illegal drug use and abuse among North Korean residents including legal enforcement and professional treatment.

Besides,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take an initiative to investigate thoroughly the current situation of drug use and abuse in North Korea for properly understanding of the gravity of this problem and seeking appropriate solutions. In the meantime,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needs to change the policy to allow the settlement support for those North Korean defectors that have drug abuse problems in the past when they were in North Korea.

Keywords: Illegal drug use, North Korean, Drug abuse, Transitional unification period